

“지금도 북한 땅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인터뷰] ‘탈북민’ 이자 ‘사모’로...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

지난해는 UN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쉽게 거론되지 못했다. 오히려 같은해 북한인권재단은 폐쇄됐고, 최근에는 해킹으로 지역의 하나센터 탈북민들 정보가 노출돼 신변이 위협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북한인권단체들 혹은 탈북민들에게는 어려운 시기인 듯 보인다.

이에 탈북민이며 기독교인으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을 만나 그의 생각을 듣고 간증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지금 현재도 북한 땅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이들과 강제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다”면서 “이 분들의 생사가 위급한 상황이다. 이런 분들이 하루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나서 주신다면,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서 대통령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이 한별이 친구가 꽃제비가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봤습니다. 그 때 저희 어머니가 중국에 자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위부의 감시 대상이 되면서 더 이상 북한에서 살기 어려워져 탈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2년 9개월 지내다가 한국에 왔고, 한국에 와서 대학교를 다닌 후 안양시청 공무원 3년 2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탈북민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립해서 탈북민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보고서로 국제 사회에 알렸습니다. 특별히 북한인권을 위한 UN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서울 종로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곳에 2016년도에 탈북민들의 인권 침해 실태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기관에 (단체를) 등록하면서 ‘탈북난민’이란 용어가 국제법상에는 없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등록할 때는 그 단어보다는 다른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북한인권증진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설립 했습니다.

제가 북한인권 단체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북한인권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저희 오빠가 2009년 강제 복송 당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또 그 전에도 어머니께서 2002년도와 2004년도에 두 차례 강제 복송되면서 북한인권 실태가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지 잘 알게 되면서 북한인권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탈북청년 강제복송 사태가 있었는데, 그 때 자원봉사 하면서 북한인권 단체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3국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여성들이 인신매매 피해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10대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겪고 있는데, 국제 사회가 다 금지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인신매매이기에, 이런 실태가 너무 심각해서 그런 여성들을 구출하도록 요청하는 일을 저희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10대가 아니라도 20~30대 여성들도 긴급 구출을 요청하면 저희가 구출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구출한 여성이 15명 정도 됩니다.



“지금도 북한은...” 기독일보가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을 만났다. 탈북민 출신인 그녀는 탈출하지 못한 오빠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 때문에 더 활발하게 북한인권 사역을 해나가고 있고, 한국사회와 교회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북한인권증진센터 제공

Q3. ‘자카르 코리아’ 행사의 일환으로 소장님은 특별히 단독 기자회견을 열었고,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빠가 복송된 당시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상황인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2009년 오빠가 저희 도움을 받으려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완전 탈북은 아니고 그냥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일 날 중국 변방 군인들에게 잡혀서 강제 복송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빠가 변방 군인들에게 자기를 풀어달라고 빌었나 봅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남한에 있기에 자기는 강제 복송되면 죽는다고, 제발 자기를 풀어달라고 간구했는데, 아쉽게도 중국 군인들이 그 내용까지 서류상 그대로 적어서 북한에 오빠와 함께 송환했다고 합니다. 2009년도는 김정일이 북한 보위부를 장악할 때입니다. 당시 북한의 보위 사령부에서 (누군가) 납북하고 통화를 하면 간첩으로 누명을 씌울 수 있고, 반역죄 씌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 때 보위부 사령부에서 내려와 오빠를 조사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냈습니다. 오빠에게는 두 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모에게는 가족하고...가족이 없어졌어요. 아내와 강제이혼을 시켰습니다. 오빠 생사확인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생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실태에 대해서, 2016년도 서울에 있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에 저희 오빠 생사 확인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고, 2018년 8월에 북한이 유엔이 답변을 보냈는데, 북한은 “정치적으로 음해할 목적으로 생사확인을 요구하는 건 답변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현상이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피해자가족들이 침묵하는 게 아니라 자주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거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빠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과 사이가 좋을 때 우리 탈북민들은 묻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 버립니다. 사실 자기 고향 땅을 목숨을 걸고 떠나려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절박하고 생계에 대한 위협이 있으나...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압박해 버리니까...인간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그런 상황에서 탈북을 하는 것이지, 다 나은 사람들이라서 탈북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남북정상이 회담할 때 우리는...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떨어지고,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다 묻혀야 하고...북한인권 단체 가운데 조사 받은 곳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 지원도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북한 인권법에 의하면 재판도 사실 설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재단을 폐기할 정도였고, 재판 이야기는 다 들어갔습니다.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는 민간단체들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 조항들이 사실 북한인권법에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센터 해킹사건도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까지 유출됐기 때문에 많은 탈북민들이...탈북한지 얼마 되지 않은 탈북민들이 좋아해야 하기 때문에, 탈북민들은 북한에서는 반역자란 죄명을 씌우고, 배신자로 죄명을 씌워 불러버리기 때문에 북

Q4. 얼마 전 하나센터 해킹으로 탈북민들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비단 이번의 경우가 아니라도, 최근들어 달라진 분위기로 말미암아 탈북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불안감으로 탈북민들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져야 하기 때문에, 탈북민들은 북한에서는 반역자란 죄명을 씌우고, 배신자로 죄명을 씌워 불러버리기 때문에 북

한과 사이가 좋을 때 우리 탈북민들은 묻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 버립니다. 사실 자기 고향 땅을 목숨을 걸고 떠나려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절박하고 생계에 대한 위협이 있으나...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압박해 버리니까...인간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그런 상황에서 탈북을 하는 것이지, 다 나은 사람들이라서 탈북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남북정상이 회담할 때 우리는...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떨어지고,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다 묻혀야 하고...북한인권 단체 가운데 조사 받은 곳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 지원도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북한 인권법에 의하면 재판도 사실 설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재단을 폐기할 정도였고, 재판 이야기는 다 들어갔습니다.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는 민간단체들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 조항들이 사실 북한인권법에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센터 해킹사건도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까지 유출됐기 때문에 많은 탈북민들이...탈북한지 얼마 되지 않은 탈북민들이 좋아해야 하기 때문에, 탈북민들은 북한에서는 반역자란 죄명을 씌우고, 배신자로 죄명을 씌워 불러버리기 때문에 북

Q5. 탈북민 출신으로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정부에, 또 국민에게 바라는 바를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은 고문당하고 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억류당한 분들도 계십니다.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생사가 위급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데, 우리는 너무 둔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가운데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도 (앞으로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꼭 꼭 거론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은 고문당하고 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억류당한 분들도 계십니다.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생사가 위급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데, 우리는 너무 둔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가운데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도 (앞으로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꼭 꼭 거론해 주기를 바랍니다.

▶2면에 이어

오정현 목사 목사안수 받지 않았다? 사랑의교회, 주장에 법적 대응 시사

사랑의교회는 최근 ‘오정현 목사가 미국 PCA 교단으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한 미주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사랑의교회는 홈페이지에 공지한 글을 통해 “지난 10일 미주 인터넷 언론이 반

대과 활 모씨가 제작한 영상을 근거로 오정현 목사가 미국 PCA 교단으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의혹제기는 2013년부터 계속됐었는데, 의혹을 제기한 활 모씨는 지난 2017년 오정현 목사와 교

역자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허황되고 악의적인 글을 블로그와 SNS에 게재한 이유로 여러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인물”이라 설명했다. 이어 사랑의교회는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 여러 차례 공지를 통해 야시사

피, 오정현 목사는 미국 개혁신교교단(CRC)에서 1985년 1월 22일에 설교인허권(LICENSURE TO PREACH)을 받았고, 오렌지 한인교회에서도 ‘강도사’의 자격으로 1년 10개월 간 사역한 뒤, 이를 인정받아 PCA 교단에서 1986년 10월 15

일 목사안수를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에 근거해 우리 교회와 오정현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활 모씨와 인터넷 언론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교회는 “성도들께서

는 이와 같은 거짓 주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와 오정현 목사를 위해 한결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은식 기자**

美NGO들 “대북 인도주의 활동 제약 완화 기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면담한 국제 구호단체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가 대북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9일 워싱턴 DC에서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해온 미국 구호단체들과 유엔 기구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전미북한위원회

(NKNK)의 키스 루스 사무총장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인들이 인도주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문제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루스 사무총장은 “얼마 전부터 인도주

의 목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려는 미국인들에게 특별여권 발급을 제한해왔던 미국 정부의 태도가 바뀐 것 같다”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국제적십자사

(IFRC)의 리처드 블루워트(Richard Blewitt) 유엔상주 대표는 비건 대표는 “유엔 대북경제지원위원회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이 경제 예외로 승인되는 것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블루워트 대표는 “미국은 그동안 유엔 대북경제지원위원회에서 일부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들이 대북경제 예외로 인정되는 것을 막아왔지만 이번엔 비건 대표를 만

난 후 미국 측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비건 대표는 지난달 19일 한국에서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고 대북 지원단체들과 적절한 대북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평양뉴스**

北조선종교인협의회, “南종교단체와 연대”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가 지난해에 이

어 올해도 남북관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

게끔 남한 종교단체와 연대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11일 밝혔다. 조선종교인협의회 정학준 사무국장은 이날 북측 민족화해협의회가 운영하는 사이트 ‘려명’에 “종교인들도 남북관계발전과 조국통일실현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

겠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남한 종교인들과 굳게 손을 잡고 올해를 남북관계발전과 조국 통일 위업 수행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해로 빛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종교인협의회는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남측 천주교와 개신교 공동체인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회’에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평양뉴스**

인터뷰

18면에 이어서



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 © 북한인권증진센터 제공

기독교일보가 탈북민 출신으로 북한인권 사역을 펼치고 있는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을 만났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입니다.

Q7. 사모님이시기도 합니다.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또 남편인 북한정 의연대 대표 정베드로 목사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사실 북한에 있었을 때, 저희 친할머니가 그루터기 신자셨는데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 때 당시에는 그것이 기도하는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아 그 때 아버지께서 기도를 하신 것이구나’를 알았습니다. 고난의 시기 한참 힘들 때, 아버지께서 항상 특정한 방향으로 앉으셔서 머리 숙이고 주무시지는 않는 데 계속 몸을 흔드셔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시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아 아버지께서 기도를 하셨구나’ 싶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전쟁 시기 태어나셨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당시 아버지가 영아세례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받았다는 것이지요. 저희 집안은 그런 집안이었지만 저는 그런 것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린 나이라 말을 또 잘못하면 집안이 다 추방당하니까 (말을 조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기독교 박해는 정말 심하잖아요? 기독교를 아예 없애려고 하고 김일성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그걸 아니까 부모님은 저의 입만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단지 한 번, 아버지께서 “신이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 한다”는 한탄을 하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 때 어린 마음에 ‘아 우리 아버지는 신을 믿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알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살 때 북한의 장진호 전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걸 봤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연합군이 장진호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마지막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막연히 기도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존재인지도 몰랐고, 예수님께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국에 와서야 접하게 됐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대학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사 사건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때도 단지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물론 마음의 감동도 있고 영접도 했지만, 그러나 좀 더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게 된 계기는 2007년 12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준비하는 시기였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때 교회 청년 한 분이 히브리서 4:6을 보내주면서 힘내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이후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에 너무 심취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에는 다윗처럼 시편을 읊기도 했습니다. 찬양도 하고, 그러다 보니 성령의 감동으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고, 성령의 감동이 밀려와 그동안 담뿍던 영적인 것들이 많이 열리며 더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장은 평생 가는 것이기에, 저는 지금까지 믿음이 성장하는데도 10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 갈 것입니다. 믿는 탈북민들도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탈북민이 교회 갔다가 정착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큰 도움보다는 관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분이러도 와서 말을 걸

어주고, 불편한 것이나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말 붙여 주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발을 붙이는 데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에는 힘이 있죠.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에는 힘이 있고 영혼 구원이 이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베드로 목사님 만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2010년 안양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독일에 통일전문가 국외 연수를 갔었습니다. 당시 동독 니콜라이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독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신 이유는 독일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서 통일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 때 독일에서 통일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 때 독일에서 통일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또 독일에서 통일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연세대 통일대학원 석사 과정에 진학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SNS에 정베드로 목사님이 서울역에서 통일광장기도회를 한다는 홍보글을 올렸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해서 정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또

목사님이 인권활동을 하고,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다가 1년 반 정도 감옥생활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죠. 저도 가족이 인권 집행을 당한 피해자이기에, 북한인권 봉사활동을 목사님 단체에서 하게 되면서 목사님과 인연이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Q8. 여성의 몸으로 어려운 북한인권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어떻게 어려움은 극복하셨습니까?

사실은 북한 인권 활동을 처음 하면서 3년 반 정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거의 매일 울 정도로. 처음 1년 반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 뒤 2년, 3년은 정말 울음도 없이 이 활동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힘들지만, 정말 힘들었던 부분은 이 일에 대해 남한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또 ‘북한인권’ 하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북한인권’은 정치를 넘어 ‘사람’과 ‘가족’의 이야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못하고, 이를 알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들 인권 활동을 하는 것은 정책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탈북민 출신으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사람인데, 정부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을 감수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NGO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을 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많은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운을 잃거나 낙심했을 때 정 베드로 목사님도 옆에서 많이 기도해 주었고, 더불어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교회들이 동참해 주고 그래서 극복이 가능했습니다.

Q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 현재도 북한 땅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 또 우리 국민들도 강제 억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생사가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루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나서 주신다면,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서 대통령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주축이 되고, 국민이 힘을 가지고 나선다면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형구 기자



스웨덴 탈북꽃제비 강제송환 중지 기자회견에서. © 북한인권증진센터 제공



스웨덴 탈북꽃제비 강제송환 중지 기자회견에서. © 북한인권증진센터 제공

GODIVA
Belgium 1926

NEW 고디바 초콜릿 기프트 컬렉션
큐브 트뤼프 & 골드 디스커버리

소중한 분들에게 특별함을 선물하세요

제품문의 080 827 7700 www.godiva.kr

한국복음주의협의회 2월 월례회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목사 강연(1)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은 한 편으로는 빛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어둠이다. 한국교회의 상황이 빛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흐르고 있는 한류를 통해 복음의 한류가 흐르게 하는 것이 세계 역사의 행동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권성수 대구동신교회 담임목사 © 노형규 기자

요한계시록 2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나오는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보인 사랑이 “처음 사랑”이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4절의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바로 그 다음 절인 5절에 나오는 “처음 행위”이다. 그것이 한글역역어에는 “처음 행위”로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처음 행위들”(프로타 에르가)로 나와 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들”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9장 9-10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한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은 AD 53년 경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2년 반이라고 하지만 2년으로 잡아) 날마다 강론해서 소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정도로 주의 말씀을 소아시아에 가득 차게 만들었다.

어떤 사본(Western texts)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매일 5시부터 10시까지, 지금 시간으로는 11시에서 16시까지 성경을 강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점심시간 한 시간을 빼면 매일 4시간 성경을 강론한 셈이다. 적게 잡아 1년 300일을 강론했다고 하면, 하루 4시간씩 2년 600일 동안 총 2,400시간 강론한 것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매주 하루 주일 예배 시간에 30분 성경을 강론한 것과 바울 사도가 강론한 것을 한 번 비교해 보라. 우리나라에서 매주 30분, 그것도 성경을 충실하게 강론했다고 할 때, 1년간이면 몇 시간 강론할 수 있는가? 1년이 52주이지만 대충 50주로 잡고 계산하면, 1년에 24시간 성경을 강론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성경 강론하는 것에 비하면,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강론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100년 동안 하는 분량이다.

바울이 2년 동안 매일 4시간 성경을 강론했다면, 에베소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로 사모했을까 짐작할 수 있다. 에베소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마치 스피치로 물을 빨아 먹듯 섭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에베소 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섭취할 뿐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로 소문을 내서, 요즈음 식으로 말하면 전도를 해서, 2년 만에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만들었다.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이런 ‘처음 행위’가 있었다. 그들이 말씀 강론을 사모했다면, 말씀 강론이 핵심인 예배가 살아 있었을 것은 자명하다. 예배를 사모해서 모이고, 모인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면, 식탁 교제가 살아 있었을 것도 자명하다. 말씀 청취, 예배, 전도, 교제 등이 다 살아 있었던 것이다. 예배 행위, 전도 행위, 설교 청취 행위, 교제 행위 등 ‘처음 행위들’이 다 살아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에베소 교인들은 말씀을 청취할 뿐 아니라 청취한 말씀에 따라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 개혁하는 작

“야성적 초심의 회복과 분출”

업을 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의하면 에베소 교인들은 5만 드라크마에 상당하는 마술 서적을 불태워 버렸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드라크마이다. 요즈음 노동자 하루 품삯을 대충 잡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5만 드라크마라면 50억 원이다. 에베소 교인들이 50억 원어치 마술 서적을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불태워 버렸다. 이렇게 철저하고 단호한 ‘순종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17-35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AD 55년 경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을 불러 그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한 후에 부두에서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승”했다(행 20:36-38).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사랑의 초심이 있었다.

에베소 교인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초대 교인들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행 2:42). 그들은 “모든 물건이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2:44-46). 예루살렘 교회도 말씀 청취, 기도, 교제, 자선, 모임 등의 ‘처음 행위들’이 살아 있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는 엄명(嚴命)을 당국자들로부터 받았지만 복음의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다(행 5:28).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서 공회” 앞을 떠났다(5:41).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5:42). 초대교회 사도들은 공석에서나 사석에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중단 없이 계속 하되 목숨을 걸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렇게 예배, 설교 청취, 전도, 기도, 교제, 사랑 등의 살아 움직이는 ‘처음 행위들’이 있었던 것이다. 사랑은 추상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고린도전서 13장 4-7절에 나오는 사랑의 특징은 15개의 동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첫 사랑’은 그 동사적 표현인 ‘처음 행위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 추상 명사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동사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AD 53년과 55년으로부터 약 40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집필한 AD 95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에베소 교회가 40년 만에 ‘첫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행위들’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첫 사랑의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해서 형편없는 교회였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행위(행위)라 원문에 행위들과 소고”와 “인내”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행위들이 ‘소고’의 차원에서 있었고,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인내’의 차원에서 있었다(계 2:2). 이것은

AD 95년 경의 에베소 교회에 정통행위(ortho-praxy)가 있었다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는 또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폭로하는 정통교리(orthodoxy)가 있었다(2:2). 특별히 당시 길드 조직에 들어가서 직장생활과 사업의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와 음행을 종교행위로 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도 괜찮다는 ‘니콜로당’ 이단을 폭로할 정도로 정통교리를 철저하게 지켰다.

AD 95년의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는 정통교리와 정통행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첫 사랑’의 ‘첫 행위들’을 버렸다고 하셨다. 에베소 교회는 정통교리와 정통행위는 있었지만, 그것이 ‘첫 사랑’의 차원과 ‘처음 행위들’의 강도(強度)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는 정통교리와 정통행위가 있기는 있었지만, ‘불 없는 난로’와 같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의 수액을 공급받고 그 수액이 약동하고 열매로 분출해야 한다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 15:7-8, 11).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촉되어 있으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수액이 약동하고 우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수액이 흘러간다.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수액이 약동하고 흘러갈 때 그것이 사랑의 열매로 분출된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가 된다. 우리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체험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되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수액을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첫 사랑’의 ‘처음 행위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된다. 우리가 ‘첫 사랑’의 ‘처음 행위들’을 분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동전의 양면처럼 체험하게 된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할 때에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게 되고(요 4:14; 10:10),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때에 가뭄에 내뿜 흐르듯 조금씩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대하(大河처럼) 풍성하게 도하(道) 흘러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생수의 강(원문에는 ‘강들’이란 뜻의 ‘포타모이’)이 흘러”간다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수액을 체험하고 흘러가게 하는 것은 다 성경에서 하시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16장에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중심인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늘 접촉되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그것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고 하신 것도 이 때문이다. 사도 요한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 지금의 한국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비교할 때 어떤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이나 책망이 다 달랐는데, 우리나라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어떻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어떤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상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 개교회는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떤가?

한국교회에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첫 사랑’의 ‘첫 행위들’이 있는가? 가령 매일 4시간씩 2년간 성경 말씀 강해를 들을 수 있는 청취력과 수용력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와 갈망과 청취와 순종이 있는가? 소아시아 전역에 말씀을 전할 만큼의 전도의 열정이 있는가? 매일 모여 말씀을 듣고 말씀 교제를 하고 점심을 먹고 식탁교제를 할 정도의 교제가 있는가? 부두에 다른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서로 목을 안고 울면서 전승하는 사랑이 있는가?

초창기 한국 교회의 경우 밤 집회를 5시간이나 계속한 경우도 있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 장대현교회에서 겨울 낚사 평안남도 사경회가 개최되었다. 이때 아침 경건의 시간부터 시작해서 30분 동안 찬양, 3시간의 성경 공부, 오후 전도, 그리고 저녁에는 전도집회가 이어졌다. 1월 14일 저녁 집회는 저녁 7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끝이었다.

조지 맥쿰(George McCune)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어제 저녁 집회는 저녁 7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밤 집회는 새벽 2시에야 끝났습니다. 하나 들켜 일어나 자신들의 죄-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악과 싸우며 대단히 고통스러워하면서--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계속하는 것을 보았지만 결국 승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양 부흥운동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의 부흥회가 위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은 한 주에 한 번 하는 주일설교도 30분이 넘으면 시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은가? 전도의 열정은 사라지고 교인들 중에서 1/10정도가 일년에 한 사람 정도에게 ‘교회 나가자’고 말하는 정도가 아닌가? 주일 예배 때 그 정도 아는 교인 몇 사람과만 악수하고 인사 몇 마디 정도하는 교제가 고작이 아닌가? 세계의 다른 교회에서 찾기 힘든 새벽기도가 있기는 하지만, 교인 중 1/10도 나오지 않고 금요기도회에는 교인 중 1/4정도가 나오면 잘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 안에 물질도 나누고 정도 나누는 사랑이 있는가?

이단과 이မ် 서클도 자기들의 사상 공부에 지금의 한국교회보다 더 열심을 내고 있다. 신전지의 경우 한 주에 며칠씩

모여서 자기들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정통교회의 교인이 신전지에 가서 9개월만 공부하면 신전지 풀수가 되어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면서까지 자기네 사상을 포고한다.

한 때 대학생 이념 서클에 들어가서 2개월만 사상학습을 하고 나면 열서를 쓰는 열성분자가 되었다. 어느 기독교 대학에서 그리스도인 대통령 후보가 신앙간증을 하고 나가는데 그의 자동차 앞에 이념서클의 어떤 여학생이 누워서 차량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했다. 도대체 마스-레닌의 이념(Marxism-Leninism)이 무엇이기에 학생을 저렇게 돌변하게 하는가 싶었다.

몇 개월 전 장신 김철홍 교수의 간증형 강의를 듣게 되었다. 김철홍 교수가 한국 명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특정 이념 혁명그룹을 만들어 학습을 할 때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념학습을 했다고 한다.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중 점심시간과 낮잠과 저녁 시간을 빼면 하루 9시간씩 이념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사상토론을 할 때 문방구에서 노트를 사서 한 권씩 나누어서 노트를 다 채울 정도로 기록하고 치열한 토론을 했다고 한다.

김철홍 교수는 후에 그 이념그룹에 소속된 학생들이 혁명에 성공한 후에 대기업업을 쪼겐 작은 기업을 차고있어서 고급 자동차를 타고 평평 거리고 살 이기적인 꿈을 꾸고 있다는 현실에 실망을 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미국 유학을 가서 바울신학을 연구하면서 마스레닌 사상을 배울 때는 바울신학을 통해서 사상개종을 하고 지금은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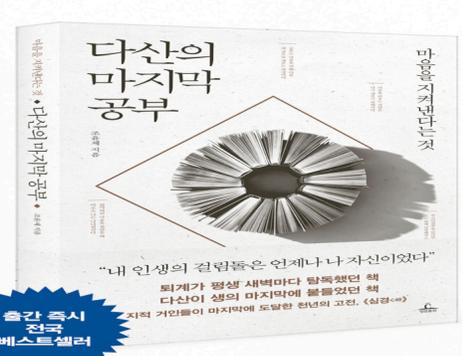
나는 김철홍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나 이념서클에 속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토론하고 적용하고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 보았다. 나 자신부터 이 면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회에서는 물론 신학교에서조차 그렇게 철저한 말씀 연구와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베소 교회의 ‘첫 사랑’의 ‘첫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 청취와 적용 면에서만 봐도, ‘첫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된다. 초창기 한국 교회 교인들의 말씀 청취와 적용과 비교해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사랑’을 버린 것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단과 이념 서클의 잘못된 사상 학습과 인생을 건 실천행동과 비교해도,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첫 사랑’의 ‘첫 행위’를 버렸다는 인지도,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첫 사랑’의 ‘첫 행위’는 요즈음의 용어로 야성적 초심이라고 볼 수 있다. 초심은 첫 사랑의 순수하고 뜨거운 첫 마음이다. 야성은 인생을 건 초심의 태도와 표현이다. ‘첫 사랑’의 야성은 타성이 아닌 야성, 야욕이 아닌 야성이다.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야성적 초심을 상실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야성적 초심을 상실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첫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계 3:1)

자료제공=한국복음주의협의회



다산의 마지막 공부

“내 인생의 건립들은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

퇴계가 평생 새벽마다 읽었던 책 다산이 생의 마지막에 붙들었던 책

지혜 거인들이 마지막에 도달한 천년의 교본. <심경>

출간 즉시 전국 베스트셀러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니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 <심경> 첫 구절 중에서

다산 정약용, 퇴계 이황, 정조 이산... 그들은 왜 마지막까지 <심경>을 읽었을까?

“지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온 힘을 다함으로써, 그간의 공부를 <심경>으로 매듭짓고자 한다. 아, 능히 실천할 수 있을까!” — 다산 정약용

“나는 <심경>을 얻은 뒤에 비로소 마음을 공부하는 밤에 대해 알게 되었다. 공부에 뜻을 두고 일어서 평생 분할할 수 있는 힘은 이 책에서 나왔다.” — 퇴계 이황

공부의 마지막에서 도달한 깊은 경지, 마음-마음공부의 ‘결판왕’이자 지름길은 잊힌, 조선 최고의 베스트셀러, <심경>이 이야기해주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

다산의 마지막 공부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초판권 저음 1장 10,000원



내가 단단해지는 새벽공부 천년의 내공

초판권 저음 1장 10,000원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 하라 (마5:40-48)



한복합 자문위원, 노량진교회 원로, 림인식 목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 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 하라(5:48)”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의 말씀은 경전(經典)이나, 도덕 교훈이 아니다. ‘경전’이나 ‘교훈’으로는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는다. 죄에서 구원 얻지 못한다. 무능한 인간이 능력을 얻을 수 없다. 산상수훈을 ‘경전’이나 ‘교훈’으로 보는 이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 하라”는 말씀이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불가능하다.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말씀! 부활생명의 말씀이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이다.’(계2:29)라고 하신대로 받는 이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는 말씀의 내용이 곧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영으로 계신 하늘 아버지를 육신을 입은 사람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분이 되어 주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해주시고, 실천하셨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 하라”는 말

씀은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는 ①‘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준다, ②5리를 억지로 가자는 자에게 10리를 동행한다, ③꾸고자하는 자에게 거절 않고 가져 준다, ④원수도 사랑한다, ⑤땀박자를 위해 기도한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은 즉

1. 십자가를 신앙생활화 하는 것
예수님주신 말씀대로 ①겉옷까지 준다, ②10리를 더 동행한다, ③꾸고자 하는 자에게 가져 준다, ④원수도 사랑한다, ⑤땀박자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실천하면 그것이 때사에 십자가 지는 생활이다. 예수님은 사상도 십자가 사랑이고, 실행도 십자가 사랑이시다. 십자가로 속죄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를 믿는 동시에 각각 십자가를 생활로 실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십자가 지는 것이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 이렇게 힘들다! 그런데 참된 생명과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다.

제 1세기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가산 전도를 팔아 하나님께 바쳐, 가난한 사람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구제(救濟)’, ‘구빈(救貧)’으로 도와주었다. 그것이 남마다 구원 얻는 무리가 많은 ‘구령(救靈)’으로 나타났다. 새해를 맞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초대 교회 신자들이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 ‘구빈’으로 ‘구령’생활을 하자!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사는 것이다.’

2. 타애(他愛) 교육적 진리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겉옷까지 주고, 10리를 더 가주고, 원수를 사랑하며 땀박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 이상 없는 적극적인 타애 교육이다. 이기적인 지옥을 천국으로 돌이키려면 타애적인 모험이 있어야 한다. 적극적인 실천으로만 이루어진다. 이것이 개인이나 사회를 살리는 산교육이다. 로마는 이 타애교육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개조되었다. 이기적 인간이나 사회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교육으로만 새로워진다. 참 타애 교육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이 된다.

3. 유기적으로 필요한 말씀이다.
우리 몸은 유기체이다. 그러므로 몸의 한 부분이 상하였을 때는 그것을 회복하려면 두 배의 노력이 요한다. 사회도 따르므로 때에 생각할 수 없는 유기체이다. 죄악으로 타락한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다 멸망하였다. ‘회개하라’는 요나의 외치는 소리에 상하군민이 모두 회개한 니느웨에만 다 구원받았다. 인간 사회는 모두 공동체인 동시에 마치 한 배를 탄 것처럼 공동운명을 가지고 있다. 죄로 상자가 심한 것을 고치려면 내 뱀인 5리만으로는 부족하다. 남의 뱀까지 죽 10리를 노력해야한다.

사람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비록 아버지의 일이라고 해도 기쁘지 않고, 하기도 싫다. 그런데 그 5리를 더하는 10리도 결국 남의 뱀이 아닌 내 일이라고 느껴질 때, 괴롭지도, 분하지도 않다. 마땅하게 여기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뱀까지 힘쓰는 것은 멸망에서 함께 구원 얻는,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다. 멸망 받는 소돔 고모라가 되지 않고, 함께 구원 얻는 니느웨처럼

이 되게 하는 일이라면 ‘겉옷까지도 주고’, ‘10리를 더 가며’, ‘꾸려는 자에게 가져 주고’, ‘원수를 사랑하며 땀박자를 위해 기도한다!’ 중국 성경학자 워치만 니가 젊은 시절에 농사를 지었다. 밤늦게까지 눈에 물을 가득 대놓고 다음에 나가보면 눈에 물이 다 빠지고 없어졌다. 아래는 주인이 눈동리를 잘라 자기 눈에 물을 다 뽑아 가버렸다. 여러 번 이런 일이 계속 되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아래는 주인에게 “내 물을 왜 당신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말도 없이 다 가져갈 수가 있느냐?” 따졌다. 그 사람이 “잘 못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그런데 워치만 니가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워치만 니, 그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신자는 자기 일만 생각하고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워치만 니는 “하나님 앞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서 펌프로 먼저 아래 눈에 물을 채워놓고 자기 눈에 물을 댔다.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러자 아래는 주인이 마음이 변화되면서 서로 관계가 좋아졌다. 그도 결국 예수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묵숨까지 던지면서 남을 사랑하는 깨달은 그것이 곧 함께 사는 나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즉 산상수훈인데 예수님의 삶이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생활이다.

4. 의식적 도덕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10리를 더 가주고,’ ‘겉옷까지, 주는 데서 ‘분발력’과 ‘아량’과 ‘상호애(相互愛)’가 생긴다. ‘꾸려는 자에게 가져주면, ‘형제’라는 느낌이 온다. 원수를 사랑하며 땀박자를 위해 기도하면, ‘이타 정신’을 체험한다.
‘남을 향한 ‘분발력’이나, ‘아량’이나, ‘상호 애나, ‘형제의식’이나, ‘이타정신’은 ‘의식적 도덕’이다. 이런 순수 도덕이 있을 때 훈훈한 인간관계와 믿음만한 사회가 이루어진다. “의식적 도덕”이 있는 사람은 일을 속임수로 하지 않는다. 그럴 때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진다. 로마제국의 멸망은 바로 도덕과 종교의 타락 때문이었다. 예수님 말씀대로 실행했을 때 얻어지는 의식적 도덕이, 진정한 日常 품앗이 보수(報酬)이다. 이런 보수가 많은 나라가 행복 지수 1등 국가가 된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의식적 도덕’이 되고, 인간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5. 경제적 원리로 투자이다.
억지로 5리를 가자는 것을 10리를 동행하는 것은 없어지고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 경제상으로 말하면, 하나의 투자이다. 미국의 헨리 포드가 처음 운수 사업을 시작했을 때 몇몇 사람들이 포드 회사에 500\$씩을 투자하였는데 그 회사가 세계적 인정을 점유하게 되자 그 사람들은 모두백만장자가 되었다.(당시500\$=자동차 1대 값) 투자는 경제적 성공의 기초다. 그러나 반드시 꼭 성공할 수 있는 일에 투자해야한다.
예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는 투자는 그 결과가 엄청나게 된다는 약속이다.
바울 사도는(빌3:8)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헐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생명까지 송두리째 투자했다. 예수님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모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산적 투자이다, 이렇게 투자했을 때, 인류가 영원히 놀랄 정도의 현세와 내세의 보상이 된다. 2세기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종자(種子)이다’고 하였습니다. 비단 순교자의 피만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눈물, 땀, 시간, 재능, 말(言), 행위 모두가 종자이다. 많이 뿌릴수록 많이 거둔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자!

6. 결론
새해인 금년 2019년은 기미년 독립 만세운동 100주년의 해이고, 남북통일의 관심과 실천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때이다. 2019년 ‘한국교회 처음 사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하는 그 구체적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한국 교회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산상수훈을 실행하여 ‘십자가의 신앙생활 화로 구원을 이루어 가고, ? 타애 교육이 되어 참 그리스도인을 키우며, ?유기체로서의 전체가 살아나게 하며, ?의식 도덕이 있는 인간관계로 세상을 바꾸게 하며, ?영적투자가 되어 인류구원의 현세와 내세의 엄청난 결실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실천이 확실하면 우리가 열려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확신한다!!
자료제공=한국복음주의협의회

열왕기상 강해 (왕상15:1-8)



한복합 자문위원, 노량진교회 원로, 림인식 목사

(왕상 15:1-8, 개조) [1]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열여덟째 해에 아버지야 유다 왕이 되고 [2] 예루살렘에서 삼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야 아버지의 딸이더라 [3] 아버지야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4]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5] 이는 다윗이 옛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6]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7] 아버지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8] 아버지

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기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4장 마지막 절인 3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기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야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버지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의 아들 르호보암이 마침내 죽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아들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나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처음부터 폭정을 공언했습니다. 그러다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가뭇게 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보다 더 폭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자신은 전갈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쪽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하고 남북으로 나라가 분단되고 맙니다.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를,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보다 먼저 죽습니다. 여로보암은 22년간 재위했기에 르호보암보다 5년을 더 살며 통치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버지야 등장합니다. 아버지야는 즉위한 지 3년 만에 요절합니다. 아버지야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6절 이하입니다. “[6] 르호보암과 여로보

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7] 아버지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으니라 아버지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8] 아버지야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기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야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버지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의 아들 르호보암이 마침내 죽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아들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나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처음부터 폭정을 공언했습니다. 그러다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가뭇게 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보다 더 폭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자신은 전갈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쪽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하고 남북으로 나라가 분단되고 맙니다.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를,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보다 먼저 죽습니다. 여로보암은 22년간 재위했기에 르호보암보다 5년을 더 살며 통치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버지야 등장합니다. 아버지야는 즉위한 지 3년 만에 요절합니다. 아버지야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6절 이하입니다. “[6] 르호보암과 여로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3절).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4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를 둘로 나누리라고 하실 때도 아버 다윗을 봐서 그의 당대에는 하지 않고 그의 아들 대에 가서 하겠다고 하십니다. 르호보암도, 아버지야도 다 약해서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야의 아들에게 등불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등불을 가지고 등장한 아버지야의 아들이 아사입니다. 아사는 선한 왕으로 오랫동안 남왕국을 통치했습니다. 아사는 처음부터 능동적으로 종교개혁을 합니다. 아사는 그 아말로 하나님이 주신 등불을 높이 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 평가하신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은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아버지야도 약했지만 그러나 내 총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윗 평가 부분입니다.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옛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충직한 군인 우리아

를 최전방으로 보내 전사하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것 외에는 다윗이 정직하게 살았다고 하십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평소에도 회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안일치 않았고, 침상 매트가 썩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진실이든 회개사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변명하고 핑계대기 바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기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혼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다윗을 생각해서 그의 후손에게 등불을 주어 다윗이 건설한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이 당신이 명하신 것을 모두 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그는 사무엘이 오기 전에 나서서 반제를 드렸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때 하나님은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아간 왕도 포로로 잡아오고, 살인 짐승들도 전리품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나의 명령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전쟁 때도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갔고, 우회하라고 하면 우회했습니다. 기다리다가 너무 위에서 소리가 들리면 진격하라고 할 때도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베푸실까요? 순종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심지어는 떠난후 그곳까지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비록 그가 우리가 사건 같은 죄도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보사 그의 당대뿐 아니라 후손에게도 복을 베푸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다윗의 정직과 순종이 그의 허물을 상쇄하며 그의 후손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던 일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력과 성취감을 높여주는 스크래치 북의 매력에 빠져 보세요!

나이트 뷰 인 스크래치 북 야경이 아름다운 세계의 도시
마이 페어리 테일 인 스크래치 북 그림이 아름다운 동화
보태니컬 가든 인 스크래치 북 마음에 위안을 주는 꽃과 시
더 지odiac 인 스크래치 북 나와 당신의 운명, 별자리

패키지 구성: 도안 12장 + 스크래치 전용 펜

전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세요. | 문의 전화 02-724-7851 Style**